

「PULSAR joint EduCoP & FinCoP Workshop」 발표



- 주 제:** (1)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와 공공재무관리의 연계 사례
(2)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보고기준 개발
- 일 시:** 2024년 6월 5일(화) ~ 6일(수)
- 장 소:** 몬테네그로 울친 회의장, 온라인 참여
- 발표자:** 박성진(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세계은행 재무보고개혁센터(CFRR)⁸⁾는 2023년 6월 5일~6일간, 몬테네그로 울친에서 「PULSAR joint EduCoP & FinCoP 9차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공자산관리와 공공투자관리 및 공공분야 회계 기준의 연계, 그리고 지속가능성 보고’를 주제로 공공투자관리 평가방법론과 국별 사례 및 지속가능보고가 공공분야 회계기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성진 소장은 본 워크숍에서 “한국의 공공투자관리와 공공재무관리의 연계 사례”를 주제로 한국의 공공투자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공공기관 재무관리로의 연계 사례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제도, 타당성 재조사를 포함하는 공공투자관리의 upstream(상류) 활동에서 출발하여 공공투자의 시행과 운영 및 평가를 포함하는 downstream(하류) 활동으로 이어지는 한국 공공투자의 생애주기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또한 공공투자관리가 공공자산관리로 연계되는 사례의 하나로 한국의 사회기반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대상의 경영평가 제도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2023~2027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소개하여 공공기관의 회계정보를 통한 공공투자자와 자산관리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8) 세계은행 재무보고개혁센터(World Bank Centre for Financial Reporting Reform)

이어진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보고 기준 개발”의 주제 발표에서 기준 개발의 권고 사항으로 UN SDGs와 파리협약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국가를 대표하여 정부가 체결한 법적 의무를 고려하여, 국가단위의 보고와 보고실체 보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고실체 자체와 보고실체의 정책 수립자로서의 역할 구별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반영하는 영향 중대성(Impact materiality)을 고려하고 예산, 재무 보고 및 일반정부재정통계(GFS) 간의 연계를 정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관련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의 사례들로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브라질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살펴 보았다.

